

9의 본질

-문학편-

직당맨 지음

05

문학접근법

형식적 문제		내용적 문제	
문학개념어	문학개념어 + 효과	<보기>	선지
지문과의 1:1 대응	선지에서의 관계	논리적 구성 찾기	지문의 인과관계

1. 형식적 문제의 풀이

해당 문제의 선지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1. 문학개념어
2. 문학개념어 + 효과

먼저 문학개념어에 경우, 선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선지의 문학개념어와 지문의 1:1 대응을 확인해야 한다. 1:1대응에서 ‘문학개념어’가 확인되지 않거나, 헛갈릴만한 다른 ‘문학개념어’가 선지로 사용된 거라면, 선지는 잘못된 것이다.

이 경우, 문학개념어를 우선적으로 잘 숙지해둬야 한다.

두 번째로 ‘문학개념어 + 효과’ 선지의 경우, 문학개념어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연결이 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 이는 선지에서의 문학개념어와 선지의 관계가 잘못 연결된 것일 수도 있고
- 지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선후 혹은 인과관계와 선지의 관계가 다를 수도 있다.

REMARK 1 형식적 문제의 예시

18.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② 독백을 반복하여 /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선지	수단	효과 혹은 목적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
②	독백을 반복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냄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
④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 관계	-
⑤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	-

‘문학 개념어’는 문학적 도구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런 도구들의 용도나 활용법으로 쉽게 풀어져서 국어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실제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보면 ‘특정 용어’만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용도나 활용법이 생략되어 나오기 때문에, 개념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번 6월 모평에 ‘문학에 형식적 문제’와 관련한 문학 개념어를 정리할 것이지만, 이 형식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학 개념어를 위한 교재를 정하고 이를 숙지해야 한다.

한편으로 문학비평이론에 대한 논문의 일부이다.

문학적 도구

소설에서 자기 자신을 ‘그’ 또는 ‘그녀’와 같이 제 3자로 표현하는 것은

문학적 도구의 효과

‘서술자로서의 자기 자신’과 ‘등장인물로의 자기 자신’ 사이에 거리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거리감은 기존에 익숙한 무언가를 익숙하지 않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익숙하지 않은 감각은 ‘자아 분열로 인한 불안감’을 형성할 수도 있으며, ‘주관을 객관화’하며 ‘자기의지를 해체시키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중략)...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형식적 문제가 고안될 때, 이러한 ‘문학적 도구’와 ‘효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수단-목적’을 고려하여 선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단-목적’ 관계를 통해 선지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형식적 문제의 선지를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내용적 문제의 풀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루벤 보쟁의 정물화 속 미학적 특징과 의미’

17세기 네덜란드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부가 축적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시민계급은 이전의 귀족과 성직자들이 즐기던 역사화나 종교화와는 달리 자신들에게 친근한 주제와 형식의 그림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취향에 따라 출현한 정물화는 새로운 그림 후원자들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반영했다. 화가들은 다양한 사물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욕망을 그려 냈다. 동시에 그들은 그려진 사물을 통해 부와 화려함을 경계하는 기독교적 윤리관을 암시했다

루벤 보쟁의 <체스 판이 있는 정물-오감>에는 테이블 위로 몇 가지 물건들이 보인다. 흑백의 체스 판 위에는 카네이션이 꽂혀 있는 꽃병이 놓여 있다. 꽃병에 담긴 물과 꽃병의 유리 표면에는 이 그림의 광원인 창문과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빛의 효과가 미묘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 빛은 테이블 왼편 끝에 놓인 유리잔에도 반사될 뿐만 아니라, 술잔과 꽃병 사이에 놓인 흰 빵, 테이블 전면에 놓인 만돌린과 펼쳐진 악보, 지갑과 트럼프 카드에도 골고루 비치고 있다. 이처럼 보쟁은 섬세한 빛의 처리를 통해 물건들에 손으로 만지는 듯한 질감과 함께 시각적 아름다움을 부여했다.



이 그림의 부제가 암시하듯, 그림 속의 사물들은 각각 인간의 욕망을 상징한다. 당시 많은 화가들이 따랐던 도상적 관례에 의거하면, 붉은 포도주와 빵은 미각과 성찬을 상징한다. 카네이션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후각을, 만돌린과 악보는 청각을 나타낸다. 지갑은 탐욕을, 트럼프 카드와 체스 판은 악덕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모두 촉각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림 오른편 벽에 걸려 있는 팔각형의 거울은 시각과 함께 교만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사물들의 다의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감을 주제로 그린 다른 화가들의 작품들로부터 이 그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오감 정물화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강조하며, 현실의 욕망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라고 격려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중세적 도상 전통에서 ‘일곱 가지 커다란 죄’ 중의 교만을 상징하는 거울에 주목하게 된다. 이때 거울은 자기 자신의 인식, 깨어 있는 의식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해된다. 그런 점에서 이 그림은 감각적인 온갖 악덕에 빠질 수 있는 자신을 가다듬고 경계하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보쟁의 정물화 속에 그려진 하나하나의 감각을 음미하다 보면 매우 은은하고 차분한 느낌과 함께 일종의 명상에 젖게 된다.

이전의 귀족과	① 17세기 네덜란드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부가 축적됨
성직자들이 즐기던	② 새롭게 등장한 시민계급은 자신들에게 친근한 주제와 형식의 그림을 선호하게 됨
역사화나 종교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취향에 따라 출현한 정물화는 새로운 그림 후원자들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반영했다
	- 화가들은 다양한 사물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욕망을 그려 냈다.
	- 부와 화려함을 경계하는 기독교적 윤리관을 암시했다

있는 그대로 분석하기	루벡 보장의 <체스 판이 있는 정물-오감>에는 테이블 위로 몇 가지 물건들이 보인다.
	- 흑백의 체스 판 위에는 카네이션이 꽂혀 있는 꽃병이 놓여 있다.
	- 꽃병에 담긴 물과 꽃병의 유리 표면에는 이 그림의 광원인 창문과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빛의 효과가 미묘하게 표현되어 있다.
	- 그 빛은 테이블 왼편 끝에 놓인 유리잔에도 반사됨
	- 술잔과 꽃병 사이에 놓인 흰 병, 테이블 전면에 놓인 만돌린과 펼쳐진 악보, 지갑과 트럼프 카드에도 골고루 비치

상식을 따라가는 해석	당시 많은 화가들이 따랐던 도상적 관례에 의거함
	- 붉은 포도주와 빵은 미각과 성찬을 상징한다.
	- 카네이션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후각을, 만돌린과 악보는 창가를 나타낸다.
	- 지갑은 탐욕을, 트럼프 카드와 체스 판은 악덕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모두 축가를 상징하기도 한다.
	- 그림 오른쪽 벽에 걸려 있는 팔각형의 거울은 시각과 함께 교만을 상징한다.

주어진 논리 따라가기	당시 대부분의 오감 정물화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강조하며, 현실의 욕망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라고 격려했음
	- 중세적 도상 전통에서 일곱 가지 커다란 죄 중의 교만을 상징하는 거울에 주목하게 됨
	- 거울은 자기 자신의 인식, 깨어 있는 의식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해됨
	- 이 그림은 감각적인 온갖 악덕에 빠질 수 있는 자신을 가다듬고 경계하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음
	→ 기독교적 윤리관

먼저 <보기>가 제시될 수 있다.

<보기>에서 제시되는 논리적 구성을 꼭 정리해야 한다. 이는 ‘독서’와의 연결이 깊다.

독서에서 결국 논리적 관계를 정리하듯이, 철저하게 정리해야 한다.

선지에서는 특정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선후 혹은 인과관계를 선지로 구성한다.

따라서 해당 부분의 앞뒤를 읽거나, 혹은 지문 전체의 흐름에서 해당 부분에 적용되는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4. 문학의 모든 선지에서 할 일

문제풀이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각 선지에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 형식적 문제에서는 ‘왜 이 효과를 사용했는가?’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갈 있으며
- 내용적 문제에서는 ‘왜 해당 사건을 지정했는가?’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갈 수 있다.

이는 한 문제를 통해,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추가적인 근거를 만들 수 있다.

06 '문제'로부터

1. 문학의 특징과 문제의 논리



문학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에,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시의 경우, 감정에 몰빵한 문학형식이다. 그래서 논리적 비약도 심하며, 논리적 구조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다.

그래서 문제나 <보기>에서 제시되지 않았다면, 단순 '긍정-부정' 관계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주어진 <보기>에 맞추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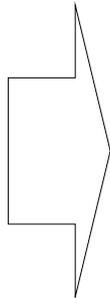
하지만 문제는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5지선다에서 선택된 하나의 답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리적 구성을 위해 대부분의 논리적 구성은 '문학지문' 밖에서 설정된다.

그것이 <보기>일 수도 있고, 혹은 문제 자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먼저 읽어서, 논리적 구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며, 때때로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REMARK 2 문학 문제의 접근법

STEP 1

1. <보기>와 문제에서 확인할 것
 - 논리와 해석방법
 - 읽어야 할 표시부분
2. 지문에서 확인할 것
 - 선후 관계
 - 인과 관계
 - 나열



STEP 2

1. 지문으로의 접근
 - 읽어야 할 표시부분
 - 대상들을 논리와 해석 방법에 따라 구분
2. 선지에서 확인할 것
 - 선후 관계
 - 인과 관계
 - 나열

2. 반복되는 문학 문제의 논리

1. 소설에서 반복되는 문제 논리

- 누가? 무엇을 했는가?
- 소설의 시점 확인과 변화, 특히 현대소설에서
- 인물의 다양한 이름, 특히 고전소설에서

2. 고전시가에서 반복되는 문제 논리

- 고전시가에 빈출되는 어휘 표현
- 반복되는 주제의식

REMARK 3 고전시가의 주제는 거의 정해져 있다.

[자연친화]

가난한 생활에도 만족함 : 안빈낙도, 안분지족, 단사표음, 단표누향, 빈이무원
이상세계: 무릉도원 (복숭아꽃 만발한 이상향)

[충(忠)]

소나무, 매화, 난, 국화, 대나무 : 지조와 절개
자연에서도 임금님에 대한 은혜를 느끼고 그리워함
때로는 '임'이 임금님인 경우도 있음

⇒ 자신을 여성화하여 임금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사랑과 그리움 / 이별 혹은 슬픈 상황]

불가능하고 과장된 상황을 상정하여 '임'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함
혹은 임과 헤어져서 그림기 때문에, 빙의라도 해서 '임'에게 가고 싶음

설정하여, 충심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

[효(孝)]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 또는 효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서러움

[바람직한 삶]

유교에서 권장하는 바람직한 삶에 대해 정리함

[현실 비판]

탐관오리 또는 부정적 현실을 비판함
풍자의 방식을 주로 사용함

[고통스러운 삶]

가난하고 고단한 일상을 묘사하여, 삶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강조함

3. 반복되는 현대시의 문제 논리

- 시간을 확인하고,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발견하자
- 대상을 확인하고, 대상이 무엇을 하는지 발견하자

4. 꼭 기억하자! 어차피 반복된다.

문학은 미학적인 표현을 쓰면서 못 알아먹을 선지를 사용하는데, 어차피 5지선다에서 하나의 답을 만들려면, 논리적 구성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주관적인 문학작품에서 객관적인 논리 문제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 문학문제의 논리는 계속 반복된다. 따라서 문학 문제는 양치기도 양치기지만, 모든 문제에서 반복되는 내용을 캐치하는 공부를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단축되고 정확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문학 문제 풀다가 뭔가 막힌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길 바란다.

일반적인 원칙! 시험을 보면서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문학 문제는 어려울 수가 없다. 문학 문제가 순간 어렵게 느껴진다면, 거리감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것이다. 즉, 어려운 단어나 복잡한 미학 표현에 집중하는 바람에 정신이 순간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다른 문제를 먼저 풀면서, 거리감을 리셋해야 한다. 즉, 다른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해당 문제로 돌아오면 바로 풀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07 문학 분석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8~21

이때 예부 상서 진량을 황제 가장 총애하시니 진량이 의기양양하고 교만 방자한지라, 정 상서 일찍 진량이 소인인 줄 알고 황제께 간하되 황제 종시 그렇지 않다 하심에, 진량이 이 일을 알고 정 상서를 해하려 하더라. 차시 황제의 탄생일이 되었는데, ㉠마침 정 상서 병이 있어 상소하고 참석지 못하였더니 황제 만조백관더러 묻기를,

“정 상서의 병이 어떠하더뇨?”

하시니 사관을 보내려 하시니 진량이 나아가 왈,

“정 상서는 간악한 사람이라 그 병세를 신이 자세히 아옵니다. 상서가 요사이 황제께 조회하는 것이 다르웁고 신이 상서의 집에 가오니 상서의 말이 수상하옵더니 오늘 조회에 불참하오니 반드시 무슨 생각 있는 줄 아나이다.”

황제 대경하여 처벌하려 하시거늘 중관이 아뢰길,

“정 상서의 죄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별로 다스리오리까?”

황제 듣지 않고 절강에 귀양을 정하시니 중관이 명을 듣고 정 상서의 집에 나아가 황명을 전하니, 상서 크게 울며,

“내 일찍 국은을 갚을까 하였더니 소인의 참언을 입어 이제 귀양을 가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오.”

하고 칼을 빼어 서안을 치며 말하기를,

“소인을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입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하며 눈물을 흘리니 부인은 애원 통도하고 친척 노복이 다 서러워하더라.

사관이 재촉 왈,

“㉡황명이 급하오니 수이 행장 차리소서.”

정 상서가 일변 행장을 준비하여 부인더러 이르기를,

“나는 천만 의외에 귀양 가거니와 부인은 여아를 데리고 조상 제사를 받들어 길이 무탈하소서.”

하고 즉시 발행할새, 모녀 가슴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정 상서 여러 날 만에 귀양지에 이르니 절강 만호가 관사를

깨끗이 하고 정 상서를 머물게 하더라.

차설. 정 상서 적거한 후로 슬픔을 머금고 세월을 보내더니 석 달 만에 홀연 득병하여 마침내 세상을 영결하니 절강 만호 슬퍼 놀라 황제께 ㉢장계로 보고하고 부인에게 기별하니라. 이때 부인과 정수정이 정 상서를 이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일일 문득 시비 고하되,

“절강에서 사람이 왔나이다.”

하거늘 부인이 급히 불러 물으니 답하기를,

“㉣정 상서께서 지난달 보름께 별세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부인과 정수정 이 말을 듣고 한마디 소리를 내며 혼절하니 시비 등이 창황망조하여 약물로 급히 구함에 오랜

후에야 숨을 내쉬며 눈물이 비 오듯 하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남장을 한 정수정은 장원 급제한 뒤 복적을 물리친다. 이후 황제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정혼자인 장연과 혼인한다. 호왕이 침공하자 정수정은 대원수, 장연은 중군장으로 출전한다.

㉔대원수 호왕에 승리하여 황성으로 향할새 강서 지경에 이르러 한복더러 묻기를,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수십 리는 되나이다.”

대원수 분부하되 철기를 거느려 결박하여 오라 하니 한복 등이 들고 나는 듯이 가 바로 내실로 들어갈새 진량이 대경하여 연고를 묻거늘 한복이 칼을 들어 시종을 베고 군사를 호령하여 진량을 결박하여 본진으로 돌아와 대원수께 고하되, 대원수 이에 진량을 잡아들여 장하에 꿰리고 노기 대발하여 부친 모해하던 죄상을 문초하니 진량이 다만 살려 달라 빌거늘, 대원수 무사를 호령하여 빨리 베라 하니 이윽고 무사 진량의 머리를 드리거늘, 대원수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더라.

황제께 ㉕첩서를 올려 승전을 알리고, 중군장 장연을 기주로 보내고 대군을 지휘하여 경사로 향하여 여러 날 만에 궤하에 이르니, 황제 백관을 거느려 대원수를 맞아 치하하시고 좌각로 평복후를 봉하시니 대원수 사은하고 청주로 가니라.

차설. 장연이 기주에 이르러 모친 태부인 뵈옵고 전후사연을 고하되 태부인이 듣고 통분 왈,

“너를 길러 벼슬이 공후에 이르니 기쁨이 측량없던 차에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올 줄 어찌 알았으리오.”

장연의 다른 부인들인 원 부인과 공주가 아뢰기를,

“정수정 벼슬이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할 것이요,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제는 노하지 마소서.”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이에 시녀를 정하여 서찰을 주어 청주로 보내니라. 이때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하더니 시비 문득 아뢰되 기주 시녀 왔다 하거늘 불러들여 ㉖서찰을 본즉 태부인의 서찰이라. 기뻐 즉시 회답하여 보내고 익일에 행장 차려 갈새, 홍군 취삼으로 봉관 적의에 명월패 차고 수십 시녀를 거느려 성 밖에 나오니, 한복이 정수정을 호위하여 기주에 이르러 태부인께 예하고 두 부인으로 더불어 예필 좌정함에, 태부인이 지난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정수정 또한 태부인을 지성으로 섬기더라.

- 작자 미상, 「정수정전」-

18.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정 상서를 처벌하기로 결심한다.
- ② ‘중관’은 정 상서를 처벌하기에는 그 죄가 분명하지 않음을 황제에게 주장한다.
- ③ ‘정 상서’는 자신이 소인의 참언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 ④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진량의 귀양지로 가서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다.
- ⑤ ‘원 부인’과 ‘공주’는 정수정이 도리를 지켜 원만하게 지낼 것임을 내세워 태부인을 진정시킨다.

19.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으로 진량에게는 정 상서를 모함할 기회가 생긴다.
- ② ㉡으로 정 상서는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된다.
- ③ ㉢으로 부인과 정수정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게 된다.
- ④ ㉣로 정수정은 황제로부터 노고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된다.
- ⑤ ㉣으로 정수정은 걱정을 덜며 떠날 준비를 하게 된다.

20.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귀양살이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② ㉠은 황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③ ㉢은 호왕과 벌인 전쟁의 결과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④ ㉢은 황제를 직접 만나 보고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⑤ ㉠과 ㉢에 담긴 소식은 황제 외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수정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이고,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다. 정수정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된다.

- ①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묻는 ‘대원수’의 발언에서, ‘진량’을 찾아 부친의 한을 풀어 주려는 ‘정수정’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는 ‘대원수’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장연’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옥을 보고 돌아’왔다며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에서,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함을 알 수 있군.
- ④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담당’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함을 알 수 있군.
- ⑤ ‘한복’의 ‘호위’를 받으며 기주로 가서 ‘태부인에게 예’하는 ‘정수정’의 모습에서,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는 ‘정수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함을 알 수 있군.

07

누가? 무엇을 했는가?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수정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이고,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다. 정수정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된다.

- ①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묻는 '대원수'의 발언에서, '진량'을 찾아 부친의 한을 풀어 주려는 '정수정'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는 '대원수'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장연'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육을 보고 돌아'왔다고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에서,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함을 알 수 있군.
- ④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담당'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함을 알 수 있군.
- ⑤ '한복'의 '호위'를 받으며 기주로 가서 '태부인에게 예'하는 '정수정'의 모습에서,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는 '정수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함을 알 수 있군.

정수정이라는 여자

- [역할]
-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
 -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
 -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

[이야기의 순서]

- ①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함,
- ② 결과적으로는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

행위

역할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묻는 대원수의 발언

- 진량을 찾아 부친의 한을 풀어 주려는 정수정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드러남을 알 수 있음.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는 대원수의 모습

-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장면이 전장에서 부인에게 옥을 보고 돌아왔다며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

-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함을 알 수 있음.

장면 징계한 일로 심사답답한 정수정의 모습

-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함을 알 수 있음.

한복의 호의를 받으며 기주로 가서 태부인에게 예하는 정수정의 모습

-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는 정수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함을 알 수 있음.

(가)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연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롭도 잊고 왔더니라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風雪)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홀 홀 홀
창천(蒼天)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씩아 - 한종일내 -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 구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潭) 위에 호르르르 낙화 같이 지더니라.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쓸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漫)하여라.

-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	[A]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	[B]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	[C]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	[D]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	[E]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들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	[F]

- 신경림, 「길」-

(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 봅니다.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오릅니다. 나는 이제 이 긴긴 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하였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패고 키가 호리 낭창하였습니다.

(중략)

어느 해 유월이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새에도 해오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움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총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겨서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제는 나도 기뻐서 그를 비겨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나의 수선이 시들어 갑니다. 그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의 병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의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의 폭을 치워 놓아야 하겠습니까.

밤이 아직 쉼 때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새 형겅이나 얻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시나 만들면서 이 낡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은 집집이 안간으로 사랑으로 웃간에도 맘웃간에도 다락방에도 허텅에도 고방에도 부엌에도 대문간에도 외양간에도 모두 짜듯하니 불을 켜 놓고 복을 맞이하는 밤입니다. 달 밝은 마을의 행길 어데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입니다. 닭이 수잠을 자고 개가 밤물을 먹고 도야지 깃을 들썩이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낚는다고 별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잣집 우물로 가서 반동이에 웅패기에 찰락찰락 물을 길어 오며 별 같은 이야기를 자깁자깁 하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또 복을 가져 오노라고 달을 보고 웃어 가며 살췍이같이 여우같이 부잣집으로 가서는 날췍기도 하게 기왓골의 기왓장을 벗겨 오고 부엌의 솔뚜껑을 들어 오고 곱새담의 짚날을 뽑아 오고……. 이렇게 허물없는 즐거움 속에 끼득끼득 하는 그들은 산에서 내린 무슨 암짐승이 되어 버리는 밤입니다.

- 백석, 「편지」-

* 육보름 : 정월 대보름 다음날.

22.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영탄적인 어조로 대상에서 촉발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예스러운 종결 표현으로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⑤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에서 화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밖’과 ‘안’을 대비하여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 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함으로써, 길에 대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① (가)는 ‘화안한 골 길’과 ‘백화 양상한 사이’를 통해, 화자가 여정 속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군.
- ② (가)는 ‘바다의 별들’과 ‘하늘에 별들’을 통해,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형상화하고 있군.
- ③ (나)는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 하고 있군.
- ④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낸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 ⑤ (가)는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에서, (나)는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군.24.

24. (가),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구월’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② (다)의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은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의 ‘어젯밤’은 화자가, (다)의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은 글쓴이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④ (가)의 ‘오늘밤’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다)의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글쓴이가 지난날을 후회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 ⑤ (가)의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다)의 ‘아직 썰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글쓴이가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25.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아득히’, ‘왔더니라’를 반복하여, ‘첩첩한 산길’과 ‘머언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을 조용시키고 있다.
- ② 2연의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3연의 ‘오래여 삭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를 통해, 자연의 유구함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표상하고 있다.
- ④ 3연의 ‘홀 홀 홀’, 4연의 ‘짜아’, ‘호르르’와 같은 표현으로,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 ⑤ 5연의 ‘동해안’과 6연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26. [A]~[F]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길’이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다는 진술의 구체적인 양상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B]에서의 경험을 [C]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 ③ [C]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가 무엇인지를 [D]에서 밝히고 있다.
- ④ [E]와 같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은 [B]와 대비되고 있다.
- ⑤ [F]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는 [A]의 ‘사람들’의 태도와 대비되고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이 수필에서 글쓴이는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 준다.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하는 기억이라면, 고향의 풍속 이야기는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로 그려진다. 이를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 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 ①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독자는 자신이 편지의 수신인이 된 것처럼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겠군.
- ②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가슴의 병’을 얻은 여인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한 것은 삶의 양면성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 ④ ‘부잣집’의 ‘기왓장을 벗겨 오’는 ‘새악시 처녀들’의 행동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일시적으로 용인된 것이겠군.
- ⑤ ‘자갈자갈’, ‘끼득깨득’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 ‘새악시 처녀들’의 ‘허물없는 즐거움’과 쾌감을 느낄 수 있겠군.

그런 일이 있는 지 한 달쯤 지나니 내 겨드랑에 생긴 이변의 전모가 대강 드러났다. 파마늘은 어김없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솟구친다는 것. 방에 있으면 쭈시고 밖에 나가면 씻은 듯하다는 것. 까닭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 등이었다. 의사는 나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에는 내 겨드랑은 멀쩡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비롯되었다. 파마늘은 전혀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튀어나왔다. 연이틀을 쭈시는가 하면 한 일주일 소식을 끊고 하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줄곧 밖에서 새운다는 것은 못 할 일이었다. 나는 제집이면서 꼭 도적놈처럼 뜰의 어느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활이 두 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견디다 못해서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 보았다. 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었다.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 보면 미열이 있던 것이 거리를 거닐게 되면서는 아주 깨끗이 편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독자들은 곧 짐작이 갔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내가 의료적인 이유로 산책을 강요당하게 되는 시간이 행정상의 통행 제한의 시간과 우연하게도 겹치는 점이였다. 고민했다.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12시부터 4시까지의 모든 시민은 밖에 나다니지 말기로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규칙이니까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소형(小型)의 도덕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도덕률을 지키는 한 내 겨드랑은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는 겨드랑이에 파마늘 같은 것이 돋으면 밤거리를 몰래 산책하곤 한다. ‘나’는 밤 산책 중 종종 다른 사람들과 마주친다.

오늘은 경관을 만났다. 나는 얼른 몸을 숨겼다. 그는 부산하게 내 앞을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레닌*인 것을, 안중근인 것을, 김구인 것을, 아무튼 그런 인물임을 실감한 것이다. 그가 지나간 다음에도 나는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다. 공화국의 시민이 어찌하여 그런 엄청난 변모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나는 정치적으로 백치나 다름없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위에서 레닌과 김구를 같은 유(類)에 놓은 것만 가지고도 알 만할 것이다. 그런데 경관이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혁명가였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혁명가라고 자꾸 하는 것이 안 좋으면 간첩이래도 좋다. 나는 그 순간 분명히 간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간첩이 아닌 것은 역시 분명하였다. 도적놈이래도 그렇다. 나는 분명히 도적놈이었으나 분명히 도적놈은 아니었다. 나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 만해지는 듯싶었다. 이 맛을 못 잊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도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 산책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설사 내 겨드랑의 달걀이 영원히 가 버린다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누룩 반죽처럼.

기적(奇蹟). 기적. 경악. 공포. 웃음. 오늘 세상에도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한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겨드랑이 간질간질해 왔다. 나는 속옷 사이로 더듬어 보았다. 털이 만져졌다. 그런데 닿임새가 심상치 않았다. 털이 괜히 뻗뻗하고 잘 묶여 있는 느낌이다. 빗자루처럼. 잘 만져 본다. 아무래도 보통이 아니다. 나는 ㉠바위틈에 몸을 숨기고 윗옷을 벗었다. 속옷은 벗지 않고 들치고는 겨드랑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실소하고 말았다. 내 겨드랑에는 새끼 까마귀의 그것만 한 아주 치사하게 짝끄만 날개가 돌아나 있었다. 다른 쪽 겨드랑을 또 들여다보았다. 나는 쿡 웃어 버렸다. 그쪽에도 장난감 몽당빗자루만 한 것이 달려 있는 것이었다. 날개가 보통 새들의 것과 다른 점이 그 깃털이 곱슬곱슬한 고수머리라는 것뿐이었다. 흠. 이놈이 나오려는 아픔이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 날개를 움직이려고 해 보았다. 꺾바퀴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참말 부끄러워졌다.

-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 레닌 : 러시아의 혁명가.

95년 수능, 이상의 '날개'

- 1인칭 시점의 난해함

수능에 나오기는 힘든 작품!!

2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 ⑤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내적 반응을 중심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2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사’가 ‘나’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나’의 증상이 ‘의사’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② ‘나’는 자신의 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곤 했다.
- ③ ‘뜰’에서의 ‘나’의 고통은 ‘방’에서보다는 덜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 ④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한다.
- ⑤ ‘혁명가’와 ‘간첩’은 ‘나’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과 비교해 보는 대상이다.

3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정신적 안정을, ㉡은 신체적 회복을 위한 공간이다.
- ② ㉠은 윤리적인, ㉡은 정치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다.
- ③ ㉠은 ㉡과 달리,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다.
- ④ ㉡은 ㉠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 ⑤ ㉠과 ㉡은 모두,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는 공간이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크리스마스 캐럴 5」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 작품이다. ‘나’의 거드랑이에 돌은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그로 인한 밤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작품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과 함께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 ①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만이 아니라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적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파마늘’이 돌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가 그만큼 절박하게 요구되었던 상황을 보여 주는 동시에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을 암시하기도 하겠군.
- ③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겠군.
- ④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날개’의 형상으로 바뀐 것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산책을 통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⑤ ‘날개’가 ‘꿇바퀴’ 같다는 점에 대해 ‘나’가 느낀 부끄러움은, 여러 차례의 산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겠군.

	28번, 일치								
	형식적 문제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형식</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효과</td> </tr> <tr> <td>① 시간의 순서를 뒤바꿈</td> <td>인과 관계를 재구성함</td> </tr> <tr> <td>②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td> <td>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킴</td> </tr> <tr> <td>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함</td> <td>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td> </tr> </table>	형식	효과	① 시간의 순서를 뒤바꿈	인과 관계를 재구성함	②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킴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함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
형식	효과								
① 시간의 순서를 뒤바꿈	인과 관계를 재구성함								
②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킴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함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함								
	⑤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내적 반응을 중심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								
	29번, 추론								
	④ 규칙을 지키면 아프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괴롭다.								
	30번, 추론								
	- 오늘은 경관을 만났다. 나는 얼른 몸을 숨겼다. (중략) 그가 지나간 다음에도 나는 ㉠은산처에서 나오지 않았다.								
	- 나는 속옷 사이로 더듬어 보았다. 털이 만져졌다. 그런데 달임새가 심상치 않았다. 털이 괜히 뽀뽀하고 잘 묶여 있는 느낌이다. 빗자루처럼. 잘 만져 본다. 아무래도 보통이 아니다. 나는 ㉡바위틈에 몸을 숨기고 윗옷을 벗었다.								
	은산처는 경관을 피하기 위해서 숨는 공간이며, 바위틈은 내 몸에 난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31번, 추론								
	③ 4번 선지와도 연결성이 있다.								
	<보기>에서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된다고 해설한 것을 인식하면,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된 이유는 자유를 향한 의지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가)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로다
 일엽편주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제1수>

굽어보면 천심 녹수 돌아보니 만첩 청산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가
 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A]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 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제4수>

- 이현보, 「어부단가」-

(나)

때마침 부는 추풍(秋風) 반갑게도 보이도다
 말술이 다나 쓰나 술병 메고 벼를 불러
 언덕 너머 어촌에 내 놀이 가자꾸나
 흰 두건을 젖혀 쓰고 소정(小艇)을 타고 오니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깬 하늘에 눈이 되어
 석양에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갈잎에 닳 내리고 그물로
 잔잔한 강물 속 자린은순(紫鱗銀脣)* 수없이 잡아내어
 연잎에 담은 회와 향아리에 채운 술을
 실컷 먹은 후에
 태기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웠으니
 희황천지(羲皇天地)*를 오늘 다시 보는구나
 잠시 잠들어 뱃노래에 깨어 보니
 추월(秋月)이 만강(滿江)하여 밤빛을 잃었거늘
 반쯤 취해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 게오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문득 의심은 월궁(月宮)에 올랐는 듯
 물외(物外)의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이도다

[B]

청경(淸景)을 다투면 내 분에 두라마는
즐겨도 말리는 이 없으니 나만 둔가 여기노라
놀기를 탐하여 돌아갈 줄 잊었도다

㊤아이야 닷 들어라 만조(晩潮)에 띄워 가자

푸른 물풀 위로 강풍(江風)이 짐짓 일어

귀범(歸帆)을 재촉하는 듯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잠깐 사이 날개 돌아 연잎배 탄 신선된 듯

연파(烟波)를 헤치고 월중(月中)에 돌아오니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인들 이내 흥(興)에 미치겠는가

강호 흥미(興味)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 박인로, 「소유정가」-

* 자린은순 : 물고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

* 희황천지 : 복희씨(伏羲氏) 때의 태평스러운 세상.

* 동파 적벽유 : 중국 송나라 때 소식(蘇軾)이 적벽에서 했던 뱃놀이.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구를 통해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은 자연 경물을 ‘너’로 지칭하여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과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⑤ ㉣은 유사한 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과 비교함으로써 화자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33.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강호 자연에서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는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가을 달밤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③ [B]에서 화자는 하늘의 달과 강물에 비친 달 사이에 놓임으로써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B]에서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는 달의 특성을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강호 자연에 은거한 화자는 달을 대화 상대이면서 동시에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프와 연관하여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가)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를,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 가며 흥취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가)의 ‘어부’는 ‘십장 흥진’으로 표현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며 ‘인세’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군.
- ② (나)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이고, ‘강풍’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는 자연 현상이라 볼 수 있군.
- ③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화자가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할 수 있군.
- ④ (가)의 ‘녹류에 고기 꿰어’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통해 유유자적한 삶이,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내어’, ‘실컷 먹은’에는 뱃놀이의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어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군.
- ⑤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고, (나)의 어부는 벗들과 함께한 흥겨운 뱃놀이를 통해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군.

08

반복되는 주제의식

33.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강호 자연에서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는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가을 달밤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③ [B]에서 화자는 하늘의 달과 강물에 비친 달 사이에 놓임으로써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B]에서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는 달의 특성을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강호 자연에 은거한 화자는 달을 대화 상대이면서 동시에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 선지분석 -

3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지가 자연친화이자 자연에게 말을 거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 교훈 -

자연 친화적 삶

물론 자연과 교감하는 삶이라고 형식적으로 배우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자연과 교감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됨

Point

국어 문학을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것,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을 함정으로 만들려고 함.

必生則死

必死則生